

투어 번호
LKED7WBKDR

놀라운 스리랑카 (24일)

24일 · 23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4일 개인 투어는 전문 기사 가이드와 함께 스리랑카 전역을 누비는 여정입니다: 네고롐보의 서쪽 해안, 담불라, 시기리야, 폴로나루와 주변의 문화 삼각지대, 캔디, 누와라 엘리야, 엘라 주변의 산악 지역, 미너리야와 얄라의 건조 지역 사파리 공원, 그리고 우나와투나의 남쪽 해안을 따라 긴 구간을 여행합니다. 지역 간 이동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산을 지나는 한 번의 경치 좋은 기차 여행이 포함되어 있고, 일정은 관광 일정과 해변에서의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역사, 자연, 휴식의 진정한 혼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동굴 사원과 암석 요새, 식물원과 차 농장, 표범과 코끼리를 만날 수 있는 두 번의 별도 야생동물 사파리, 엘라 록까지의 산악 하이킹, 그리고 우나와투나의 남쪽 해안에서 거의 2주간 휴식을 취하며 갈레 요새와 루마살라 및 우상고다 해안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투어는 Lakpura®의 전담 기사 가이드가 공항에서 여행자를 맞이하고 전체 24일간의 도로 운송과 물류를 담당하여 진행되므로,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관광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네곰보로 이동하여 호텔에 체크인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네곰보

공항에서 네곰보까지 약 20~30분의 짧은 이동 후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서해안에서 네곰보의 해변과 오랜 전통의 어업 현장을 즐기는 하루입니다.



네곰보 해변

네곰보의 모래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어업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수상 스포츠 및 다이빙

현지 암초에서 수상 스포츠나 다이빙을 즐겨보세요.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50년 된 난파선이 있어 지금은 다양한 어종의 서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Day 3 네곰보 → 담불라

내륙으로 이동하여 기원전 1세기부터 사용된, 암반을 깎아 만든 담불라 석굴 사원 단지를 방문합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석굴 사원에 들어가, 부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신왕의 석굴, 대왕의 석굴, 대신전 등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있는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을 관람합니다.

Lankapic · CC BY 2.5

황금 불상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황금 불상을 관람합니다.

Day 4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시기리야 바위 요새 관람과 주변 농촌 마을 체험을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사파 왕을 위해 건설된 5세기 바위 요새를 올라, 사자 발 모양의 계단을 통해 입장하여 유명한 벽화를 감상하고, 궁전까지 이어지는 계단식 정원, 저수지, 터널을 걸어봅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고요한 호수에서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긴 뒤, 논길을 걸으며 전통 요리 시범을 참관하고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을 맛봅니다.

Day 5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중세 수도였던 폴론나루와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의 유적지를 걸으며,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욕조, 랑카틸라카 사원,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 등 여러 기념물을 둘러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한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기며,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도 함께 관찰합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6 담불라 → 마탈레 → 캔디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인 마탈레의 향신료 정원을 거쳐 캔디로 이동한 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을 방문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유포리아 향신료 및 약초 정원

스리랑카 향신료의 수도인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및 약초 정원을 둘러보며, 다양한 언어로 설명되는 현지 향신료, 약초, 아유르베다에 대해 배웁니다.



불치사(佛齒寺)

부처의 신성한 치아 유물을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진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여, 화려하게 채색된 홀, 조각된 기둥, 황금 불상을 감상합니다.

A.Savin · FAL

Day 7 캔디 → 페라데니야 → 캔디

캔디 외곽에 위치한 왕립 식물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정원을 걸으며,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한 4000종 이상의 식물을 만나보고, 캐논볼 나무, 현수교, 생울타리로 만든 미로 등의 명소도 둘러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8 캔디 → 누와라엘리야

고산지대로 올라가며 폭포와 차 농장에 들른 뒤, 식민지 시대의 고산 도시 누와라엘리야에 도착합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인 람보다 폭포에 들릅니다.

A.Savin · FAL

맥우즈 차 농장

1852년 제임스 테일러가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처음으로 차를 상업적으로 재배하며 시작된 전통을 바탕으로, 차 공장과 농장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실론티가 재배되고 가공되는 과정을 배웁니다.



학갈라 식물원

학갈라 식물원의 그늘진 가로수길과 화려한 미로를 걸어봅니다.

Own work of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그레고리 호수

그레고리 호숫가를 따라 느긋하게 산책을 즐깁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누와라엘리야

영국이 영국 전원 마을을 본떠 조성한 고산 도시인 누와라엘리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시대적 느낌이 가득한 주택들, 성공회 교회, 골프장이 있으며, 서늘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9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초원과 구름숲, 전망대로 유명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호튼 플레인스의 고산 초원과 구름숲을 탐험하며, 많은 고유종 생물을 만나고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지도 방문합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월드 엔드와 베이커스 폭포

'월드 엔드'라 불리는 절벽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시원한 물보라가 이는 베이커스 폭포를 둘러봅니다.

Day 10 누와라엘리야 → 엘라

섬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기차 여행 중 하나로 누와라엘리야에서 엘라까지 이동합니다.



나누오야-엘라 기차 여행

차 농장과 안개 낀 마을, 하푸탈레 주변 풍경을 지나며 나누오야에서 엘라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산과 숲,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기차표는 투어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hamal N · CC BY-SA 3.0

Day 11 엘라

고산지대에서 가장 멋진 전망대 중 하나로 떠나는 하이킹입니다.



엘라 록 하이킹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지나며 엘라 록까지 세 시간 동안 하이킹을 즐깁니다. 정상에서는 반다라왈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갭, 바둘라 기찻길 등의 명소가 보입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12 엘라 → 얄라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얄라로 이동하여 그곳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Day 13 얄라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하루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에서 세 시간 동안 사파리를 즐기며, 스리랑카 표범, 물소, 늘보곰,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을 만날 기회를 가집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4 얄라 → 우상고다 → 루마살라 → 우나와투나

남해안으로 이동하며, 전설이 깃든 두 해안 명소에 들른 뒤 갈레와 우나와투나에 도착합니다.



우상고다

독성 중금속이 함유된 사문암으로 인해 나무가 자라지 않는 황량한 해안 고원을 방문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라마야나 이야기 속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 그리고 라바나 왕의 신화적인 공항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A.Savin · FAL



루마살라

갈레 동쪽에 위치한 이 언덕을 방문합니다. 정상에는 백색의 불교 다고바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이는 하누만이 떨어뜨린 히말라야 산 드로나기리의 일부라고 하며, 시타가 랑카에 머물렀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건설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인 갈레 요새를 둘러보며, 박물관, 등대, 자갈길 등을 탐방합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5 우나와투나 (15~23일차)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한 곳에서 9일간 수영, 수상 스포츠, 일몰 감상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우나와투나 해변

모래사장과 햇살, 바닷바람을 즐기며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다 위로 지는 일몰을 감상하며, 제트스키와 윈드서핑 같은 수상 스포츠도 즐겨보세요.

Bernard Gagnon · CC BY-SA 3.0



거북이 관찰

알을 낳기 위해 해안으로 올라오는 거북이를 관찰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4 우나와투나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여유로운 마지막 아침과 호텔에서의 조식을 마친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Hotel Accommodation.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